매일 INDEX

5면
'현장에서 답을 찾다' 전주시민과 소통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음 12월 23일) 제3670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집하장에 가득 쌓인 설 택배

설 명절을 앞둔 21일 동전주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설 택배를 나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해 국가공모 153개 사업 선정

전북자치도, 국비 1조3412억 확보 전년보다 878억원 ↑… '재정운용 큰 기여'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한 해 동안 국가공모사업에 15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조3,412억원을 확보, 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 1조2,534억원 대비 878억원 증가한 규모로 전북자치도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결과로 평가된다.

중앙부처는 대규모 지역사업, 지역별 경쟁사업 등에 대해 사업 대상 선정 방식을 공모형식으로 확대하는 추세여서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국가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초 연간 국가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한 뒤 공모 대상 사업발굴, 사업 필요성 검증 등 초기 준비부터 응모 및 평가 등 최종 선정까지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해 지휘부가 직접 중앙부처 관계자 설득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실 등과 협력하고 있다.

2024년 선정된 공모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농생명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분야에 대한 공모사업 선정이 눈에 띈다.

탄소산업·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45개 사업, 국비 3,774억원을 확보했다.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255억원) △대용량·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 기술개발(200억원)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사업(164억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 센터(150억원) 등의 사업추진으로 신산업 성장동력을 선점해 미래 신산업 도약 기반을 갖춰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농생명 산업 수도 분야에서는 42개 사업, 국비 2,233억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750억원)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 단지(193억원)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사업(136억원)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114억원) 등의 예산확보로 농어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등 스마트 농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도권과 문화 및 교육격차 해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예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조성 분야에서는 △국립후백제 역사 문화센터(450억원) △청년문화센터(60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60억원) △전통예술 기반 첨단기술 활용 융복합 공연콘텐츠 기획·제작 플랫폼 개발 및 실증(40억원) 등 19개 사업, 국비 83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 교육분야에서 △글로컬 대학 30(1,500억원) △교육발전특구 조성사업(450억원) 등 3개 사업, 1,951억원 국비를 확보해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교육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서도 17개 사업, 국비 4,292억 원을 확보했다. △도시재생사업(94억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70억원) △국가하천 승격(2,500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626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703억원)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올해에도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한발 앞선 대응으로 1월 현재 85개 사업, 국비 5,618억원의 사업을 발굴한 상태이다.

도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중앙부처 사업별 공모계획 및 시기 등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며, 사업발굴 등 공모 초기 단계 부터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실 등과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공모 신청시에는 도 정책과의 부합성, 사업 효과성 등 응모 필요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응모한 뒤 전문가 자문과 수행기관 공조체계 구축, 지휘부와 정치권 지원 활동 강화로 공모 선정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도는 이에 맞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상대적 우위 논리 개발과 정치권-도-시군-수행기관 합동 대응으로 '준비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 부각' 등을 통해 공모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탄소제품 표준 · 인증 토탈솔루션 센터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솔루션 센터'를 구축하여 국산 탄소제품의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판로개척에 나선다.

이 사업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협력해 기획한 사업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 200억원 중 국비 105억원과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각각 47.5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내에 1,157㎡(약 350평) 규모의 '토탈솔루션 센터'를 조성하고, 검사 및 인증평가를 위한 장비 42종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추진해온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국산 탄소제품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기술 개발부터 제품 인증까지 전주기 지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 금융산업 발전 중요 전환점

부동산 전문 운용사 '코람코 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개소
도,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추진

부동산 전문 운용사이자 국민연금공단 자금 운용사인 '코람코 자산운용'이 21일 전주에 본사 외 첫 지방사무소를 개소하며, 전북 지역 금융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람코 자산운용'은 2010년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모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함께 총 3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부동산 전문 운용사다.

최근에는 '더 익스체인지 서울'과 '여의도 농협캐피탈빌딩'을 연이어 매입하며, 지난해 10월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부동산 대출형 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박형석 코람코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함께 개소를 축하하고, 전북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열린 '코람코 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개소식.

도는 그간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2019년 SSBT은행 및 BNY Mellon은행 전주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블랙스톤, 하인즈 전주사무소 개설 등 총 12개 금융기관이 도에 이전한 바 있다.

이번 코람코 자산운용의 전주사무소 개소로 운용 자산 약 30조원 규모의 코람코가 전주에 자리 잡게 되어, 추가 금융기관들의 전북 이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코람코의 전주사무소 개소로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며,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2027년 말 준공 예정인 전북금융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국제금융도시로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